

현장 중심 소통·공감 행정 펼쳐

남원시, 23개 읍면동 순회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마무리

남원시는 지난 8일부터 25일까지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과 직접 만나 소통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송동면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현장시장실은 형식적인 간담회에서 벗어나 시장이 직접 시민의 생활 현장을 찾아가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장 방향을 공유하며 지역 현안과 불편 사항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경식 시장은 공모사업 대응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512개 마을 이동장과 지역 사회단체장, 주민 대표들을 직접 만나 일상의 불편, 마을 현안, 정책 건의사항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일정 중간 집중후으로 일부 간담회가 연기되기도 했지만, 시는 “현장의 목소리만큼이나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전 읍면동 간담회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마을 안전강화, 농업기반시설 정비, 고령자 복지 확대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현안이 다뤄졌으며,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등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9월 추경예산에 반영해 연내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8일부터 25일까지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과 직접 만나 소통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송동면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행정절차와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남원시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분기별 점검 △민원인 수시 안내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시의 미래 비전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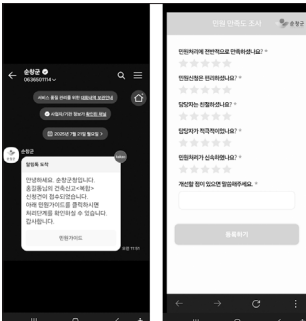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남원시는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현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주민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는 등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공감 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항은 시장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민원처리 알림톡’ 서비스 도입

순창군, 민원 접수·처리 과정 휴대전화로 실시간 안내

순창군이 28일부터 민원인에게 보다 상세한 민원처리 상황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민원처리 알림 메시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민원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민원인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로, 민원 만족도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 민원처리 알림 메시지 시스템”은 새울행정시스템과 연계되어 처리기한이 2일 이상인 모든 유기한 민

원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 접수 △담당자 지정 △보완·보정 요청 △처리기간 연장 △처리 완료 등 단계별 상황을 안내한다. 또한 민원처리가 끝난 뒤에는 만족도 조사도 함께 받을 수 있어, 군민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시스템 도입과 함께 기존 문자발송 서비스를 카카오톡 및 RCS(차세대 문자 서비스) 기반으로 고도화해 발신 기관명이 표기되고, 공



공기관 인증을 위한 ‘한심마크’도 함께 제공된다. 이를 통해 스캠 문자나 스미싱에 대한 군민의 불안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왕원 기자

임실군, “작은별영화관에서 1천원에 영화 관람해요”

임실군이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작은별영화관에서 단돈 1천 원에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2025년 국민

영화 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에 임실군이 참여하여 17,385천원을 배정받아 임실 군민들에게 최대 6,000원의 영화관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임실 작은별영화관의 기존 관람료는 1매당 7,000원인데, 6,000원을 할인받게

되면 관객은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할인 혜택이 적용되더라도 관객은 최소 1,000원 이상은 결제해야 하며, 1,000원 미만 결제는 불가능하다. 또한, 할인 혜택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예매 결제일 기준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지원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사업도 종료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심 민 임실군은 지난 23일 자매결연지인 충북 영동군을 방문해 정영철 영동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임실군·영동군, 우애 재확인

정영철 영동군수, 임실군 고향사랑기부금...심민 군수도 영동군 기부 화답

임실군 심 민 군수가 충북 영동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자매결연 도시 간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심 민 임실군수는 지난 23일 자매결연지인 충북 영동군을 방문해 정영철 영동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며, “자매도시 간의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3일 정영철 영동군수가 임실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데 대한 화답이자, 양 지자체 간의 우의를 지속적으로 다지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심 군수는 정영철 영동군수와의 환담 자리에서 지난해 자매결연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양 지역이 더욱 굳건한 협력 관계 속에서 상생의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부금 전달 이후 심 민 군수는 영동농협 역전지점 내 하나로마트 로컬푸드관을 찾아, 임실N치즈 유제품의 정식 입점 판매 현장도 둘러봤다. 이와 함께 심 군수는 영동 와인터널도 방문하여 지역 와인산업 현황과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임실의 치즈산업과 영동의 와인산업 간 교류 확대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모색하는 자리로, 향후 양 지역 특산물의 융복합 마케팅과 연계 관광 콘텐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 민 군수는 “하반기 중 추가적인 타 지자체 연계 판매 행사와 온라인 기부자 대상 홍보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역 농가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코로나19 재유행 대응간담회 가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지난 24일,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는 고위험군 보호를 강화하고자 감염취약시설 합동전담대응팀 간담회를 실시했다.

전담대응팀은 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중심 대응팀, 요양병원 및 정신건강시설 대응팀, 장애인시설 대응팀 총 13명으로 구성, 시설 내 감염병 발생 현황 관리, 현장평가 조사, 감염 예방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고위험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간담회는 소관부서인 통합돌봄과, 주민복지과, 보건지원과, 치매안심과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을 대비해 감염취약시설 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감염관리 대응체계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특히, 핫라인 구축을 통해 발생 현황을 수시 공유하고 기관별 세부 역할을 다시 점검하여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환기 및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점검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고위험군 보호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감염취약시설 집 단감염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의료원, 취약계층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8월 남원지역 취약계층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남원시보건소,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약 80명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질병의 사전 예방을 위해 추진되었다.

남원의료원은 △화대 피해아동을 위한 새싹지킴이병원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어 매년 취약계층 아동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오진규 의료원장(사진)은 “남원권 지역 주민들의 탄생에서 돌봄까지 책임지는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입시 전문 교육 플랫폼 유웨이와 협약

순창군이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입시 전문 교육 플랫폼 유웨이(대표 성운석)와 손잡았다. 군은 지난 24일 (재)순창군육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와 유웨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을 초청해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육천인재수강사 입시전문가 양성 △맞춤형 진학 컨설팅 제공 △진학 정보지원 △학부모 대상 입시설명회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지역 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식에 이어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입시설명회에서는 입시전략 분석 전문가로 잘 알려진 이만기 소장이 직접 강연을 맡아 열띤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는 농어촌 수시전형 및 정시 지원 전략, 서울·경기 및 대도시 학생들의 희망학과 트렌드 분석 등 다양한 입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뤘다. /순창=이왕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눈에 담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